

대흑천입상

대흑천은 음식, 농민, 번영, 부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흑천상의 여위고 사람을 가까이 두지 않는 듯한 생김새는, 마하칼라라고 불리는 인도의 전쟁신으로서 본연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대흑천은 2 개의 쌀가마니 위에 서서 작은 망치와 보물이 든 커다란 자루를 들고 좋은 풍채에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일반적인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이는 171cm 로, 현존하는 대흑천 중에서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조각상입니다. 다른 수많은 대흑천에 비해 특히 키가 큰 편이지만, 보물고에 안치된 다른 크고 위풍당당한 조각상들에 비하면 작게만 느껴집니다. 헤이안 시대(794-1185) 후기에 제작되었습니다. 불사(佛師)는 하나의 녹나무 목재를 통으로 사용하여 불상을 조각했습니다. 일반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묘사된 이 조각상은 고풍적인 모습이 일본의 불상 중에서도 주목할 만합니다. 조각상 앞에 놓인 부적은 가정 내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